

송광사 빛가람혁신도시서 도심포교 전개

760명 종교부지 매입 완료... 1250명 불일행자 모집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나주에 새롭게 들어설 빛가람혁신도시에 송광사가 포교도량을 마련하고 신도시 포교에 나선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최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있는 종교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종교부지 매입은 새롭게 건설하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새로운 포교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에서 30여분 거리인 나주시 금천면 일대 220만평에 인구 5만여 명이 상주하는 전원도시로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집적화된 교육시설 등을 갖춘 자족형 도시다. 이곳에는 이미 이전된 한전 본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의 공공기관 입지권 6,600여명이 거거한다.

혁신도시에는 4개의 종교부지가 있으며 이미 천주교, 기독교에서 종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전체 17,943세대(24평~32평 16,003세대 / 40평 초과 1,940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2015년까지 4,25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송광사가 매입한 종교부지는 매화제라는 저수지 옆 전체 760평 규모로, 인근에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근린생활주거지, 매성초·중·고교가 자리해 있다. 특히 매화제 옆에 1,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에 공공기관 입지권은 물론 지역민을 위한 중요한 포교당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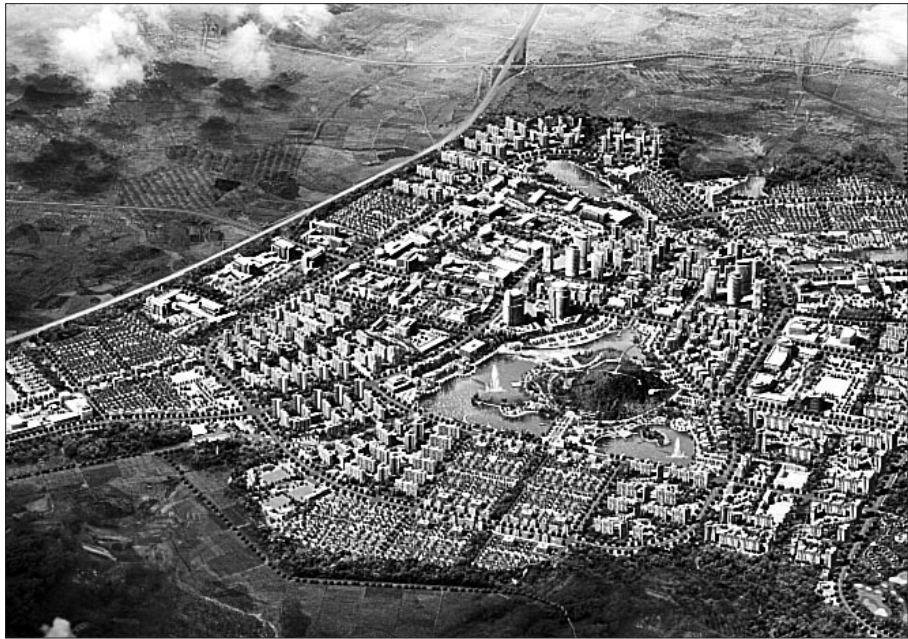
300억 예산 소요 예정

땅 1평 사기 운동 전개

송광사의 종교부지 매입은 지난해 겨울, 혁신도시 개발담당자들이 송광사를 찾으면서 시작했다. 당시 나주 혁신도시 토지를 분양 중이었고, 종교부지 4곳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와 각각 한 곳씩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

기관 담당자들이 광주전남지역 사찰을 방문해 종교부지를 홍보하던 중이었다. 송광사는 이후 대중스님들의 논의와 임회 승인을 얻어 계약을 진행했다.

종교부지 계약체결과 함께 송광사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조계총림 포교도량 건



순천 송광사가 포교당 불사를 통해 도심포교에 나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감도

립 불사'를 시작했다. 이번 포교당 건립 불사에는 총 300여 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광사는 재정확보를 위해 '땅 한 평 사기, 1250인 불일행사'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1250인 불일행사'는 부처님 제세시 1250여 비구가 뜻을 함께 해 불법을 이은 것에서 기원한다.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영산강 르네상스를 선도할 미래형 도시"라며, "명품 신도시에 맞는 포교도량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사찰을 건립하는 불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광사 측은 "보시한 한 평의 땅은 불국토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땅 한평 사기 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출가열반절 특별정진기도

출가열반 주간에 맞아 완주 송광사가 특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은 3월 27일부터 4월3일까지 8일간을 '출가열반절 특별정진기간'으로 정하고 지장전에서 중로독송 법회를 진행했다.

3월 27일 입재식에 이어 정진에 참여한 대중들은 용수보살의 <근본중송>을 독송했다. 이어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전 해인사 승가대학장)의 근본중송 강의가 진행됐다. 정진 회향일인 4월 3일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함축된 영상물 시청 등이 진행됐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법진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대중 기신문을 교육하는 불교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로다회, 아름다운 차 나눔 봉사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 백로다회 차문화봉사단은 3월 26일 고창군 아름다운마을에서 차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백로다회 차문화봉사단(단장 김봉애)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이번 봉사에서는 다도의 기본 예절교육이 진행됐다.

아름다운마을 이금자 원장은 "아름다운 마을 가족들에게 인성적으로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문화봉사단 백로다회는 아름다운마을 봉사활동 이외에도 지역 유치원 및 초



등학교 다도예절교육, 고창청보리밭축제, 모양성축제, 동리대상 현대레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다문화가족, 한국 전통문화를 만나다

(사)차한벗들(대표 회일은 3월 28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정음 송참봉 조선동네, 우도 농학전수관 등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전통혼례체합, 풍물공연 감상, 풍물약기 배우보기 등이 진행됐다.

답사기행에 참여한 김미화(중국) 씨는 "한국에 이주한지 10여년 동안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며 "한국전통문화 체험이 아이들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한벗들은 이번 전통문화답사기



행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감상이 담긴 '답사기행문'을 책자로 펴낼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학생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 인기

대학생들을 위한 사찰음식 강좌가 개최됐다. 광주 법림사(주지 무진)는 3월 26일 전남대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무재칠시(無財七施) 사찰음식 체험' 강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봉축 공모행사 일환으로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혜공)의 후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친숙함과 건강 먹거리를 대하성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체험강좌다.

강좌는 △4월 9일, 토마토화채·죽순

정과 - 지홍스님 △4월 16일, 연잎밥·곤드레밥 - 천수봉 강사 △4월 30일, 연근·무 시루떡 - 정현진 강사 △5월 7일, 모주·식혜·조청 - 고원후 강사 △5월 14일, 연근수수부꾸미·연근 도토리 호떡 - 이금일, 류태중 강사 등이 진행된다. 7번에 걸쳐 진행되는 봉축행사 기간에 시연회로 막을 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회 소요산 자재암 108문화제



소요거사로 불린 원효 스님의 설화가 전해지는 소요산 자재암(사진 위) 일대에서 108문화제가 열린다.

동두천시 문화원은 4월 18일 소요산 자재암 108계단에서 108문화제를 개최한다. 4월 18일은 1월 1일부터 108일이 되는 날이다.

108문화제는 108계단을 오르며 새해 모든 번뇌를 극복하고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장영미 시의장 및 시 관계자들과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08계단 끝인 원효바위에서는 108참회문을 낭독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올 해 처음 개최되는 108문화제를 지역 대표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경기의 소급강인 소요산을 홍보하고 자재암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동두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신앙과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35사단 군중병, 완주 송광사서 템플스테이



3월 25~28일 열린 완주 송광사 템플스테이에서 군중병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육군 35사단 호국 중국사(주지법사 성원 김대성)는 3월 25~28일 3박4일의 일정으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에서 군중병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35사단 예하부대 군중병 19명이 동참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 발우공양, 연꽃 등 만들기, 반야심경 1차1배 사경, 나만의 108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포교 현장에서 군중병은 법사가 없는 법당을 관리하는 핵심 포교사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포교사로서의 군중병의 사명과 역할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유일하

게 새로운 불자, 남성불자,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군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35사단 성원 김대성 법사는 "현장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중병들이 사찰문화를 접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35사단 호국 중국사에서 정기법회와 수계법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실 6탄약창과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삶은
꿈가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꿈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범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수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합형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